

# 팝아티스트가 본 서울 “컬러풀”



줄리언 오피의 서울 프로젝트는 최소한의 형태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존 작업에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 위부터 '빗속의 워킹 인 사당동' '워킹 인 신사동 2', 전시장 모습.  
국제갤러리 제공

“서울은 특별한 색이었다. 행인들의 70~75%가 여성이고 그중 80%가 소녀더라. 그들의 차림은 패셔너블한데, 마치 비주얼 룩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느낌이 들었다. 대부분 백팩이나 쇼핑백을 갖고 다니고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며 귀에는 이어폰을 끊은 게 특징적이더라.”

영국의 팝아티스트 줄리언 오피(56)의 눈에 비친 2013년 서울의 모습이다.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3월23일까지) 개막에 맞춰 13일 서울에 온 그는 “서울과 함께 영국 런던과 인도 뭄바이 사람들을 소재로 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중”이라며, “런던이 회색 또는 검정, 뭄바이가 노란색이라면 서울은 컬러풀하다”고 소개했다.

서울 전시는 2009년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전시작이 최소한의 선과 형태로 된 반면 이번 전시는 색깔과 묘사가 더 사실적이다. 지난 해 여름 서울의 짙은 사진가가 찍은 서울 사진 3000여장을 받아 그 가운데 10개 정도를 추린 다음 3개를 작품화했다. 작품 속 서울 사람들은 그의 말처럼 잘 차려입고 있다. 화려한 색깔의 옷, 짧은 치마에 레이스, 모자, 신발과 신발끈의 모양에 지역 특성을 반영했다. 사진 찍은 곳은 사당동과 신사동인데, 그곳이 옷 잘 입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 줄은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줄리언 오피의 관심사는 움직임과 자세다. 그는 서 있는 모습 자체도 동세를 반영하므로 자기 작업은 움직임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걷는 모습이 인간활동의 가장 자연스럽고 쓸모있는 움직임이다. 집과 작업실을 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한다. 그 가운데에는 직장인도 있고, 관광객도 있다. 그들의 움직임 속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림으로써 개인의 자세가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옆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이나 굽은 검정 테두리로 마무리한 것은 2009년과 다르지 않다. 옆모습은 이집트 피라미드의 초상, 서 있는 자세는 17~18세기 서양 궁정 초상화에서 힌트를 얻었

## 줄리언 오피 개인전

**사당동·신사동 걸어가는 사람들  
움직임과 자세 사진으로 이미지화  
붓 버리고 ‘비닐’ 붙여 색깔 표현**

**“비닐을 쏟아부은 그림과 같아”**

**택시 미터기 ‘달리는 말’에 영감  
움직이는 엘이디 작품도 선보여**

다. 특히 일본 만화와 18세기 목판화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가 붓을 버린 것은 1986년부터. 그 이후 작업은 대부분 비닐이다. 이번 작업 역시 컴퓨터에 입력된 사진의 이미지를 포토샵 처리한 뒤 색깔별로 비닐로 출력해 평판에 옮겨 붙였다. “비닐은 쏟아부은 플라스틱이다. 그 점에서 페인팅과 비슷하다. 다른 점은 붓 대신 컴퓨터 도움을 받아 형상을 잘라낸다는 것이다. 비닐은 납작하고 특별한 질감이 없어 컴퓨터 드로잉의 느낌을 전달하기에 제격이다.”

그가 비닐을 선택한 것은 공공표지판의 이미지를 그림에 사용한 시기와 비슷하다. 최소한의 선으로 그린 인체의 동작으로 화장실, 음수대 등 장소를 알리는 표지(sign)의 기능에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표지의 표준성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로 비닐을 선택한 것이다. 현대인의 삶이라는 주제와 이를 구현하는 매체를 일치시켰다.

이번 전시에는 엘이디(LED) 작품도 포함돼 있다. 엘이디는 그가 평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움직임으로 구현한 것. 한때 컬러 작업으로 확대되었던 엘이디 작업은 다시 흑백으로 되돌아왔다.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 색깔을 배제했다고 작가는 설명했다. 그의 엘이디 작업은 서울 택시에서 힌트를 얻은 것. 미터기가 돌아가는 것을 조랑말이 달리는 모양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자신의 작품에 끌어들였다고 한다. 기왕의 행인을 소재로 한 평면을 엘이디로 옮겼다. 오피는 달리는 말을 엘이디로 옮긴 영상조각작품을 영국의 한 공원에 설치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전시가 자신의 전체 작업 중 일부라면서 전모를 보고 싶다면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을 참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인체 작업 외에 풍경화도 그리는데, 풍경화에도 움직임이 반영돼 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변하는 지평선 또는 바람에 일렁이는 나뭇잎 등이다.

임종업 기자 blitz@hani.co.kr

